

김용해·김봉익·정연수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 서 론

예망어구에 대한 어류의 반응행동은 흔돈행동이론(kim, 1996)에 의한 어획과정의 재현으로 어획정도, 어획선택성(이 등, 1992, 1994) 등 현장조업을 대체하거나 예측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4가지 주요 예망어업에 대한 해당어종의 반응 행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업자료와의 비교·검토에 의하여 본 모델의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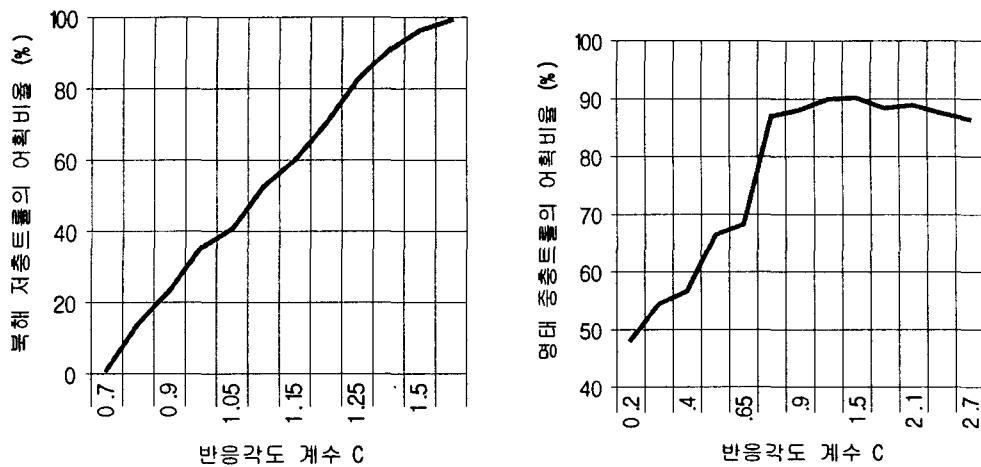
## 재료 및 방법

대상 주요 예망어업은 북해 소형 저층트롤(600마력, 어종: 해독), 북양 명태 중층트롤(3800마력), 근해 쌍끌이 기선저인망(1800마력, 참조기), 멸치 기선권현망(180마력)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1000미의 어류가 100초 동안 무작위로 발생되어 양 전개판사 이에서부터 조우하여 0.5초단위로 어류가 반응하여 이동하는 각도의 범위  $A_F$ 는 자극 계수 M에 따라서  $A_F=180 \exp(-CM)$  으로 나타낼 때 C의 값을 1~3까지 변화 시킬 때 어획미수, 도피부위 등을 조사하였다.

## 결과 및 요약

북해 Haddock 저층트롤과 북양 명태 중층트롤에서 반응각도 계수 C를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총 조우 어군개체수에 대한 어획비율은 <그림 1>과 같다. 북해 트롤에서는 Haddock을 주대상으로 반응각도계수 0.7에서부터 2.0까지 일 때 어획 비율은 7%에서 100%까지 변화되었고, 북양 명태 중층트롤에서는 반응각도계수 0.2에서부터 2.4까지 일 때 어획비율은 48%에서 90%까지, 근해 쌍끌이 기선저인망에서는 반응각도계수 0.3에서부터 1.5까지 일 때 20%에서 90%까지, 기선권현망에서는 반응각도계수 0.1에서부터 1.5까지 일 때 80%에서 97%까지 변화되었다.

본 예망어업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현장조업 결과 어획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실제 조업결과나 시뮬레이션 결과의 예망시간당(t) 어획량 (중량 Wt)은 어획된 개체수(Nc)의 체중(w)의 합이고, 어획된 개체수는 어구에 조우한 전체 개체수(Nt)에 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조사된 반응각도계수 C에 따른 어획 비율 (Rc)를 곱한 것과 같다.



<그림 1> 시뮬레이션에 의한 반응각도 계수 (C)의 변화에 따른 어획비율 변화.

$$Nc = Nt \times R_c, W_t = \sum_{Nc=1} w(Nc)$$

북해트를의 경우 조업당 어획량은  $113 \pm 53\text{kg}$ , 최대 어획빈도는 조업당  $90\text{-}120\text{kg/일}$  경우가 47% 정도였으며, 북양명태 트를의 경우는 시간당  $8.4 \pm 5.1\text{톤}$ , 최대빈도는 시간당 3-6톤일 경우가 28% 정도, 근해쌍끌이 기선저인망은 조업당  $289 \pm 167\text{상자}$ , 최대 빈도는 조업당 200-300상자일 경우가 27% 정도, 멸치기선권현망의 경우는 조업당  $1598 \pm 1449\text{발}$ , 최대 빈도는 조업당 500발미만일 경우가 26% 정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어구에 조우하는 전체 개체수( $N_t$ )와 반응각도계수  $C$ 는 현장 조업결과 어획빈도 분포가 되도록 해당어업별로 감마분포나 지수함수분포를 사용하면 어획개체수를 제어할 수 있게되고 실제 조업결과에 가깝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북양 명태트를의 시뮬레이션에서 반응각도계수 0.7, 명태 2000미 일 때 5분간 예인한 결과 어획비율이 0.8이었으므로, 시간당 어획량으로 환산하면 약 5.76톤으로 되어 북양 명태트를의 조업결과의 최대 어획빈도인 6톤에 가깝게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김용해. 1996. Developing a model of fish behaviour to towed fishing gear. PhD thesis of University of Aberdeen. UK.  
 이주희. 김삼곤. 김진건. 1992,1994. 어업기술 28(4), 365-368, 어업기술 30(3), 161-188.